

Korea

Business Presence

Citi was the first foreign bank to establish a presence in Korea in 1967. In 2004, Citi acquired KorAm bank, a leading local bank. Citi Korea now has 228 branches across the country, employs over 6,000 people, and serves more than 5 million clients with a comprehensive range of financial services including consumer banking,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ing, and private banking.

Citizenship History

Citi Korea has contributed 3.5 billion won (US\$3.7 million) to community programmes through a number of long-term partnerships since 1998.

- In 2007, Citi Korea celebrated its 10-year partnership with Habitat for Humanity Korea www.habitat.or.kr. Since 1998, nearly 500 Citi staff and their families have volunteered for annual house builds for poor Korean families.
- Since 2000, Citi Korea has supported the Joyful Union Microcredit Program www.joyfulunion.or.kr, which provides non-collateral loans to help disadvantaged families establish small income-generating enterprises.
- The Citi-Ewha Global Finance Academy has benefited 750 business majors from Ewha Women's University www.ewha.ac.kr since 2001, with senior Citi staff delivering the 12-week finance course.
- The Citi-YWCA Women's Leadership Awards www.ywca.or.kr have helped to increase public recognition of successful women since 2003.

www.citibank.co.kr

Teaching Youth to Think Smart about Money

A survey conducted by Korea'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in 2005 showed that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cored an average of 45.2% in a financial literacy test.

To help address this issue, Citi Korea partnered with the National YWCA of Korea in 2006 to launch a specially-designed financial education programme for middle school students (aged 14 - 16) called *Think Money*. In 2007, this was extended to elementary school children (aged 8 - 13). To date, *Think Money* has benefited 64,000 middle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200 Citi Korea employees have delivered the programme together with YWCA teachers.

Bang Min-jung, a social worker at the YWCA Seoul Sungdong Youth Center, said, "Kids only know how to spend and do not understand the value of money, so financial education programmes like *Think Money* are very important to help them become smarter consumers."

The advisory committee of *Think Money* involves experts from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Korea Consumer Agency, Consumer Education Department of Sook Myong Women's University, and several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programme uses a variety of channels to teach young people about basic money management concepts and values, including textbooks, teacher manuals, CDs, and online financial games. In addition to school visits, all the educational materials are made available to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through the *Think Money* website www.ywca.or.kr/think_money.

Classroom-based sessions conducted over a period of time are the preferred method of delivery to sustain students' interest and reinforce key learning points. YWCA also actively engages teachers and parents so that their own financial knowledge and confidence is increased, and they are better able to provide support for their children or students in the long term.

In 2007, the *Think Money* programme included an essay competition and a textbook translation competition to gauge students' understanding and views on financial education, and to help improve their English language skills.

Jeong-Wook Koh, aged 17 from Myungd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won one of the best essay awards with 'How to be a healthy consumer'. Jeong-Wook said, "As teenagers, we tend to spend money impulsively. However, after I read the *Think Money* book, I've learned how to avoid these mistakes, I try to save 30 percent of my allowance and keep a budget, and now I think twice before I spend my money."

In 2007, to reach an even wider audience, Korea's leading economic daily, Maeil Business Newspaper, ran a series based on the *Think Money* textbook. *Think Money* was also highlighted as a best practice at the FSS' Financial Education Forum.

To date, Citi Korea has given grants of 814 million won (US\$866,000) to fund *Think Money* and plans to continue to fund the programme in 2008.

Below:
Students from Dukdu Primary School in Busan
enjoy learning about money management
while playing a board game that is part of the
Citi Korea-YWCA *Think Money* programme.



Citi Korea's citizenship priorities are financial and economic education, youth education, community development, and diversity

한국



영업현황

씨티는 1967년 서울지점 설립을 통해 외국계 은행으로서 처음 한국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04년 한미은행과의 통합 이후 한국씨티은행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현재 전국적으로 228개의 지점 및 출장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6,000여명의 직원이 소비자금융, 기업금융 및 프라이빗 बैं킹 등에 걸친 종합 금융 서비스를 5백만여 명의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씨티는 1998년 이래 여러 국내 비영리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씨티재단을 통해 약 37억 원(370만 달러 상당)을 기부했습니다.

- 2007년은 씨티가 한국해비타트 www.habitat.or.kr의 기업 파트너가 된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약 500명의 직원과 직원가족들이 매년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왔습니다.
- 씨티는 2000년부터 소외된 빈곤층이 소득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무담보, 무보증의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신나는 조합 www.joyfulunion.or.kr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 이화-씨티 글로벌 금융아카데미는 금융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여성 인력들을 조기 발굴하고, 향후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시작되었습니다. 풍부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임직원들이 강의하는 12주간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750명의 이화여자대학교 www.ewha.ac.kr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습니
- 2003년 제정된 '한국여성지도자상' www.ywca.or.kr은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지도력 위상을 정립하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해 온 성공한 여성의 공헌을 선양하는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은 금융 및 경제 교육, 청소년 교육, 지역사회개발 및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금융생활 방법 교육

금융감독원이 2005년 실시한 금융이해력 측정조사에서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은 평균 45.2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씨티은행은 대한YWCA연합회와 공동으로 2006년 중학생(14세-16세)을 대상으로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씽크머니(Think Money)라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초등학생(8세-13세)들에게 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씽크머니에 참여한 초·중학생은 64,000명에 이르며 200명의 한국씨티은행 임직원 자원봉사자들과 YWCA 강사들이 함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YWCA 서울 성동 청소년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방민정씨는 “어린이들은 돈을 쓰는 방법만 알지 돈의 가치에 대해서는 모른다. 따라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씽크머니와 같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씽크머니 자문위원회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소비자원,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교육학과와 전문가 및 초등학교 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기초적인 돈관리의 개념과 가치를 교육하기 위해 학생용 교재, 교사용 강의자료, CD, 온라인 금융게임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학교특강 외에도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누구든지 씽크머니 홈페이지 www.ywca.or.kr/think_money를 방문하면 누구든지 모든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생들의 관심을 유지하고 주요 학습요점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강의 방법입니다. YWCA는 교사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들의 금융지식과 프로그램

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어린이 및 학생들을 더욱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학생들의 금융교육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을 알아보고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씽크머니 프로그램에 영문에세이 공모전과 씽크머니 영문번역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명덕외고에 재학중인 고정욱(17)군은 “건강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로 최우수상을 공동 수상했는데 “십대 청소년인 우리들은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씽크머니 교재를 읽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이제는 용돈의 30%를 저축하고 계획에 없는 돈은 쓰지 않도록 노력하며 돈을 쓰기 전에 두 번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일간 경제지인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청소년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2007년 씽크머니 교재를 이용한 기획연재물을 실었습니다. 또한 씽크머니는 금융감독원의 주최한 금융교육포럼에서 금융감독원이 주도하는 우수금융교육 실천사례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현재까지 씽크머니에 814백만원(8십6만6천 달러 상당)을 기부하였으며 2008년에도 지원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www.citibank.co.kr

아래
부산 덕두초등학교 어린이들이 YWCA - 한국씨티은행의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생크머니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드게임을 즐기면서 돈관리에 대해 학습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은 금융 및 경제교육, 청소년 교육, 지역사회개발 및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